

성명	한글 (한자, 예명)	김점순	지역	곡성군	사진
	분야	공예	출생 ~사망	1920~2004	
개요	중요무형문화제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				
연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 중요무형문화제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 기능보유자 인정 ▪ 1988년 서울올림픽 기념축제 시연 ▪ 1970~2003년 한국민속공예전 ▪ 1970~2003년 보유자 작품전 출품 ▪ 2004년 12월 노환으로 별세 				
생애 및 활동	<p>돌실나이의 ‘돌실’은 전남 곡성군 석곡면을 가르키는 것으로, ‘나이’는 삼베를 짜는 일(길쌈)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곡성군 석곡에서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세포의 삼베를 생산하였는데, ‘삼베하면 돌실나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명사화되어 생긴 이름이다.</p> <p>곡성의 돌실 나이는 1970년 중요무형문화제 제32호로 지정되었고, 동시에 초대 보유자로 고(故) 김점순(金點順, 1918~2004) 보유자가 인정되었다. 김점순 보유자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몰래 베를 짰고, 스무 살 때 시집 온 뒤 오직 삼베 짜는 일로 평생을 바치며 두 아들과 딸을 교육시켰다. 한 필을 팔아도 목돈 되는 것을 만들겠다고 고급 삼베인 세포를 짜는 것에 집중했다고 한다. 이는 돌실나이의 명성을 잇는 끈이 되었고, 김점순 보유자가 만든 삼베는 유독 곱고 고급스러웠다고 전한다. 김점순 보유자는 세포뿐만 아니라 농포나 중포에도 두루 능하였다.</p> <p>1982년에는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초청을 받아 시연을 하기도 하였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기념축제에서 시연을 하였다. 기증자 조선자는 김점순 보유자의 딸로 현재 중요무형문화제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 이수자이다. 시집을 간 이후에도 친정 어머니의 활동을 마지막까지 옆에서 도와 김점순 보유자의 삶과 유품에 얽힌 사연들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김점순 보유자의 사진과 이력카드, 생전에 입었던 한복, 작품 등을 비롯해 김점순 보유자가 삼베를 짤 때 사용한 베틀과 물레도 기증하였다.</p>				
기록물 참고문헌	한국문화재단. 문화유산 이야기 곡성의 돌실나이 김점순(2014. 1. 6)				
기타	2013년 중요무형문화제 기증자료집				